

CBWF 이슈페이퍼

발행처 | 충북여성재단

발행일 | 2020. 05. 29

발행인 | 이남희

홈페이지 | www.cbwf.re.kr

충북여성의 안전 인식 및 정책수요

김연화 |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목차

1. 연구배경
2. 안전한 지역사회에 대한 충북여성의 인식
3. 정책제언

1. 연구배경

- 최근 3년간 강력범죄 현황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과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여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9년 지역안전등급을 살펴보면, 충북은 범죄분야에서 5등급 중 4등급으로 하위등급을 기록하여 상대적인 안전수준이 낮았음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안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해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해야 함을 명시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 2019년 12월 25일에 시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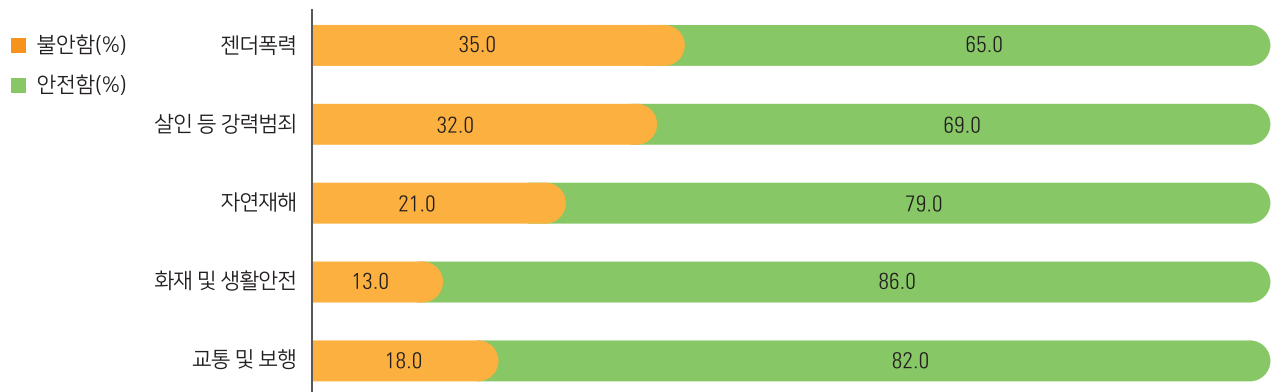
-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을 개선해야 함에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여성이 생활환경에서 겪는 안전과 위협 수준을 파악한 도내 연구는 미비하며, 충북에 거주중인 여성이 현재 수준에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구하는 욕구들도 다를 것으로 보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충청북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충청북도에 살아가면서 여성들이 겪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서비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안전한 지역사회에 대한 충북여성의 인식

- 안전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충북에 거주 중인 1,581명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코딩화 및 클리닝 과정을 거쳐 IBM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함.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안전한 지역사회 인식 및 여성안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음

1) 거주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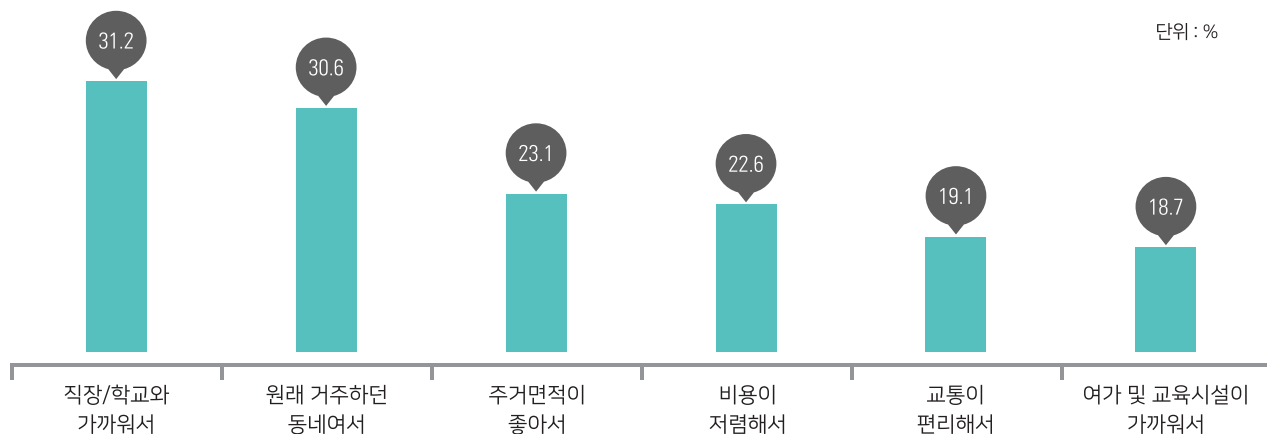
- 거주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인식을 조사한 결과, 교통 및 보행, 화재 및 생활안전,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살인 등 강력범죄나 젠더폭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2배 정도 불안하다는 인식이 높았음



[그림 1] 거주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

2) 주거지에 대한 안전인식

- 현재 주거지는 직장이나 학교와 거리가 가깝거나(31.2%) 주거면적이 좋아서(30.6%) 등과 같이 생활의 편리성에 의해 선택하였음. 그러나 비용이 저렴해서(22.6%) 주거지를 선택했다는 응답도 있어, 안전한 주거지를 선택하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에 의해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제적 취약성이 안전의 취약성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그림 2] 현재 주거지의 선택 이유(복수응답)

- 주택과 주변환경에 대한 안전인식을 조사한 결과, 주거지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70%로 나타나 10명 중 3명은 불안함을 경험하였음



[그림 3] 주거지의 안전에 대한 인식

- 주거지에 CCTV나 출입구 보안시설 및 방범창 등과 같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43.5%) 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장소가 있어서(37.6%) 불안함을 느껴, 많은 여성들이 주거지를 고려할 때 안전시설이 중요한 선택의 요인이 될 수 있음. 또한 남녀 공용주거로 인한 불안감(15.5%)이나 혼자 살아서(7.8%)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어, 같은 환경에서도 성별에 따라 안전체감도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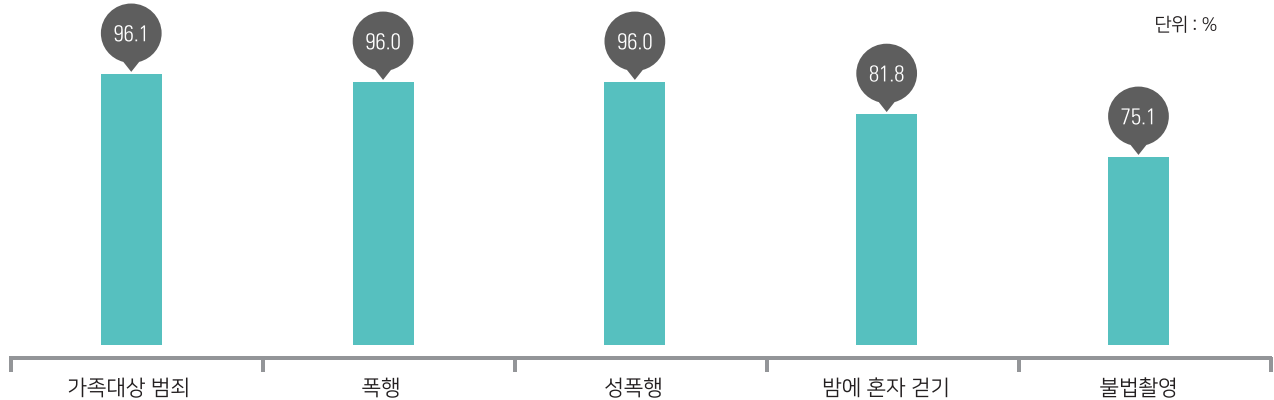
[표 1] 주거지가 불안한 원인(복수응답)

내용		백분율(%)
주거지의 불안 원인	안전시설 미비	43.5
	은닉장소 존재	37.6
	주택관리인 부재	24.1
	골목길 안전시설물 부족	23.0
	남녀 공용주거	15.5
	혼자 살아서	7.8

3)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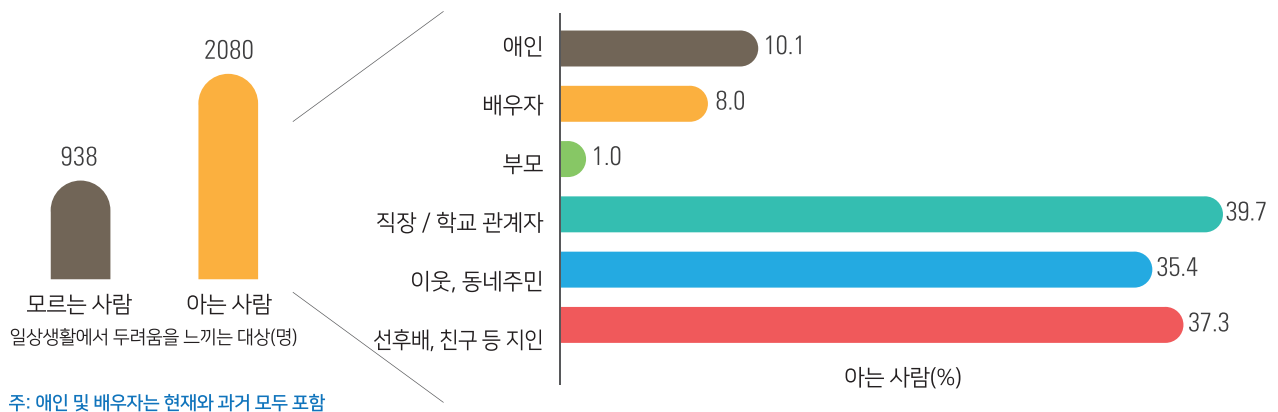
가) 일상생활에서의 두려움

-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가장 두려워했고 폭행 및 성폭행, 밤에 혼자 걷기, 불법촬영 등을 두려워 함. 많은 여성들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림 4]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두려움 정도

- 많은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사람 뿐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을 느꼈는데, 특히 아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느낀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더 많았음. 이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물리적 힘이나 사회적 권위에 의해 발생하는 일은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고,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생활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을 예측 가능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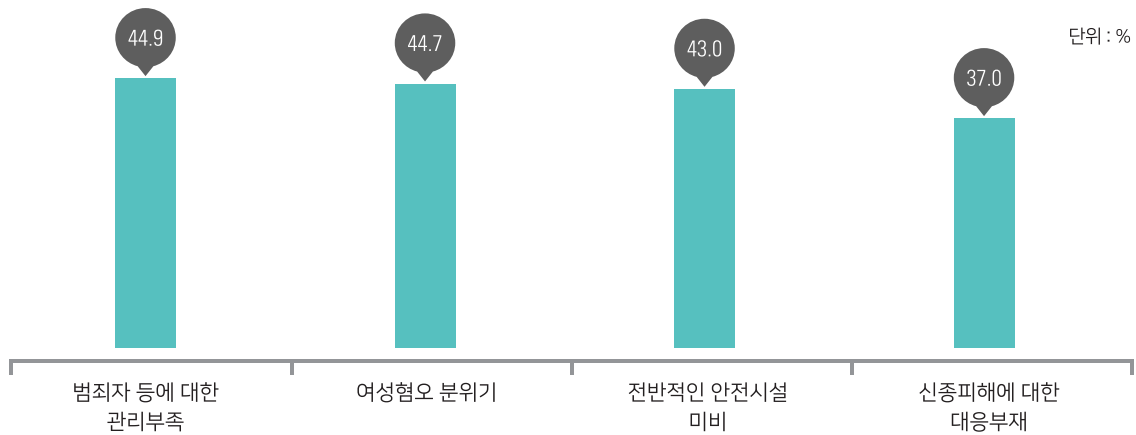


[그림 5]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복수응답)

나) 여성대상 폭력의 원인 및 대처

-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원인에 대해 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 부족(44.9%)이라는 의견이 많아 범죄자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었음. 또한 여성 혐오분위기가 강력범죄의 빈발 원인으로 나타나 성인지적 관점의 사

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전반적인 안전시설의 부족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우려를 나타냈으며, 여성의 관점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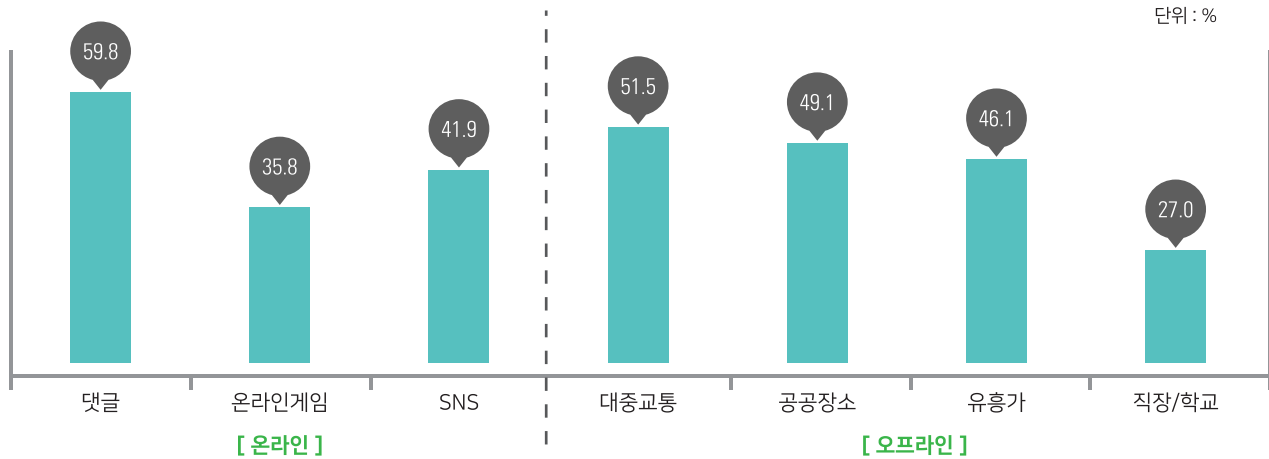
[그림 6] 여성대상 강력범죄 원인(복수응답)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범죄만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하는 편협한 인식이 문제(48.2%)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폭력에 대한 정의가 사회인식과 여성인식에 차이가 있었음. 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분위기나 성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인식도 40%이상의 비율을 보여,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

[표 2]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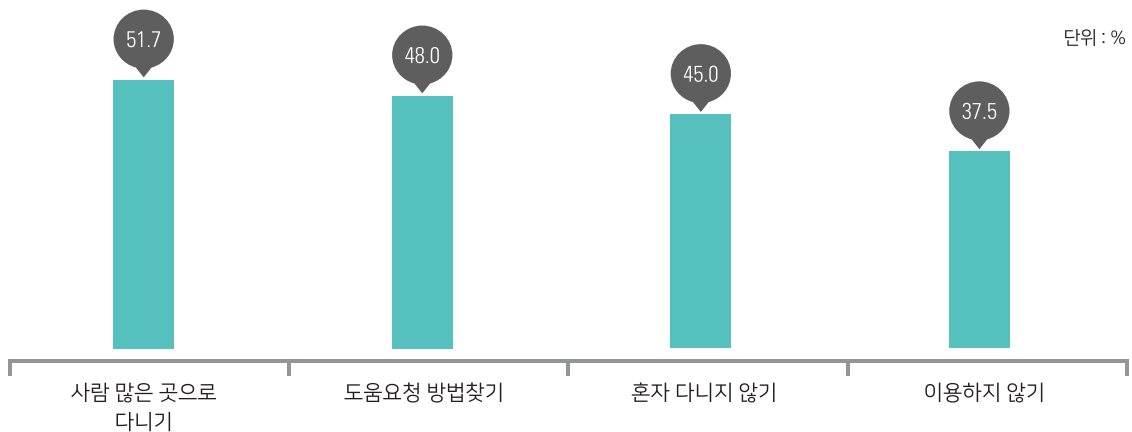
내용		백분율(%)
여성대상 폭력의 지속 이유	일부 범죄만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하는 편협한 인식	48.2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분위기	42.7
	개선되지 않는 성 불평등한 사회구조	42.0

- 성희롱이나 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에서는 댓글(59.8%)에서 가장 많은 젠더폭력이 발생했음. 다음으로는 SNS(41.9%)와 온라인 게임(35.8%) 등의 순이었음. 오프라인에서의 젠더폭력은 대중교통(51.5%)과 공공장소(49.1%)로 나타나, 많은 여성들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젠더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약받을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됨. 그러므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서 안전시설물의 설치나 안심교통 인증과 같은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대책을 마련할 때는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그림 7] 젠더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복수응답)

-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CCTV가 있거나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는 경우 51.7%로 가장 많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48.0%) 누군가와 함께 다니거나(45.0%) 가능하면 피해 다니고 이용하지 않는다(37.5%)는 응답이 있었음. 특히 젠더폭력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편의시설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통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회적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러므로 사회적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성인지적 관점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한 구성 및 배치의 계획이 필요함



[그림 8] 여성대상 폭력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대처방법(복수응답)

3) 여성안전정책의 수요 및 방안

가) 안전정책의 수요

- 충북의 안전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49.2%)와 불법카메라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안심스크린(48.4%)을 모르고 있었음. 무인 안심택배서비스는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았음. 이용해 본 안전정책 중 가장 불만족한 서비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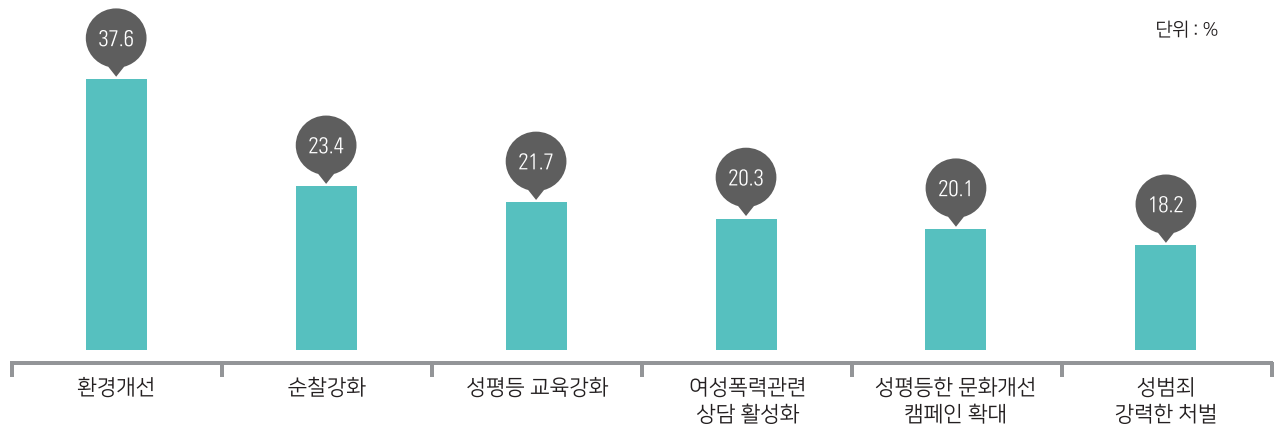
여성의 안전을 위한 우범지역 환경개선이었고, 가장 만족한 서비스는 CCTV 설치나 교체로 60%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임. 여성들은 다양한 여성정책서비스 중에서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안전시설의 설치를 선호하고 있었음

[표 3] 안전정책의 인지 및 만족정도

내용		백분율(%)
모르는 안전정책	여성가구 홈 안심 서비스	49.2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48.4
알지만 이용안함	무인 안심택배서비스	51.0
	안심벨/비상벨	41.0
경험/불만족	우범지역 환경 개선	21.3
	안심벨/비상벨	16.3
경험/만족	CCTV 설치/교체	57.5
	여성안심/안전 주차장 조성	42.2

나)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방안

-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정책의 필요성을 4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CCTV설치/교체와 여성 아동 지킴이 집이라는 응답(3.57점)이 가장 높았음.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3.54점)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고, 경찰의 순찰 강화(3.49점)와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3.48점)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음. 충북의 여성들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시설이나 안전인프라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이를 반영한 안전정책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안전을 위한 안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안전한 환경이 구축되면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냄. 경찰의 순찰(23.4%) 및 성평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21.7%)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여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의 활성화(20.3%)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18.2%)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여성들은 지역사회의 순찰강화를 통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지기를 원하며, 여성대상 폭력과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이 활성화되어 인식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여성대상 폭력이 개인이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적극적 역할이 필요해 보임



[그림 10] 여성대상의 폭력해결을 위한 방안(복수응답)

3. 정책제언

1) 지역사회 안전한 환경 구축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확대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를 할 때는 범죄현황과 더불어 지역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등의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 함. 또한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을 계획할 때도 노후화된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 외에 성, 연령, 주거형태 및 주거환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의 안전정책 홍보
 - 경찰의 탄력순찰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음. 지역의 안전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의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해야 함
- 안전인프라 구축 및 확대
 - 많은 여성들이 CCTV 설치나 비상벨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여성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과 경찰의 순찰과 같은 방법서비스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2) 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정책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의한 충청북도 및 시군의 조례제정 필요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의 근절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되는 만큼 충청북도 및 시·군의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여성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 안전한 사회의 기반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통해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것임. 소규모 단위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나 체험위주의 활동으로 구성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함

- 여성안전과 관련된 통합안전정보시스템 구축

-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으나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낮은 편으로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도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함

김연화, 노필순, 이화영(2019). 「안전한 지역사회에 대한 충북여성의 인식 및 정책수요 조사」 연구를 요약, 재구성함